

3 주전에유스앤드 웨일리 시간의 이름에 방송시간에 선교지에 갔다온 한학생을 인터뷰하기 위해 부지런히 기독교방송으로 걸음을 열중하는데 맨하탄 한가운데 서 난데없이 내반대쪽에서 내려오던 차가 서더니 “전도사님”하며 흰칠하게 생긴 젊은이가 뛰어내리며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얼마전에 아이를 낳았고 백일잔치를 한다며 부부와 함께 아이와 나를 만나러 와준 청년이였다. 그를 처음만난것은 12 년전에 뉴욕업스테이트의 한교도소에서였다. 밤송이머리에 얼굴은 검게 그을린 눈이 부리부리 이목구비가 멋지게 생긴 키가 큰 잘생긴 청소년이였었다.

처음보았을때 참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낙천적으로 보였던 그가 자신이 경찰에 구속된후 아버지까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것을 교도소에서 들었어야 했으며 아버지만 의지하시던 엄마가 가장이되어 동생과 홀로 힘들게 버티고 사시는것을 보며 그안에서 하루하루 자책과 뼈를 깎는 아픔과 반성으로 지내는 그 힘든 시간들을 나는 그후 주육 함께 지켜 보았어야 했던 아이였다. 늘 자신의 청소년기의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가족에게 다시는 갚을수없는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때문에, 특히 엄마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아들이라는것에 늘 마음이 아파 그렇게 지내는것을 보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기도로 부담스러운 나의 마음을 덜어냈어야 했던 그런 아이였다. 그와는 참으로 많은 추억이 있었다. 17 명의 한인재소자들과 함께 있던 그곳에 아주 특별한 허락을 교도국으로 부터 받아 2 주에 한번 그들의 식사를 손수 지어서 준비해갈수있었던 3 년의 시간들은 우리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기도 했다. 허가를 낼수없어 혼자만 교도소안의 예배실에 한인재소자들과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갈때는 말 그대로 허리가 휘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시간들이였다. 아이들이 먹을 갈비 돼지고기 상추쌈 고추, 라면 과자 밥등을 그것도 장정 17 명그리고 한국음식을 못먹어 일인 3,4 인분을 끄떡없이 먹어치우는 그들의 배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음식은 어찌나 부피가 큰지 교도소 정문에서 예배실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는 걸음 거리인데 가히 가관이였다. 다행히 종종 나를 안내해주는 교도관들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했지도저히 나혼자로서는 가져갈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먹다 죽으면 행복할거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을것같아요” 하며 먹어대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런 그들이 출감후에 내게 다시 찾아와 “전도사님 그때 가지고 오셨던 갈비 돼지삼겹살 이런맛을 다시 찾아보려고 여기저기서 먹어보지만 그때 맛을 도저히 찾을수없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것은 맛의 차이가아니가 희소가치의 법칙 즉 귀하게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환상적이 맛의 가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것이이었을까? 아뭏든 그는 이런 그들과의 시간속에 한사람이었었고 출감날 전혀 예기치 못한 출감날이었기에 식구들과 연락이 안되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내게 연락을 해와 그를 도울수있었던 기억들, 그리고 4년전이었나? 결혼한다고 초청을 받아 결혼식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앞에 밝게 웃으며 내게 달려와 덤석 안아주던 청년 그리고 아빠가 된 그가 맨하탄 한가운데서 차에서 뛰어내리며 넙죽 인사를 하며 나를 반기는것이다. 어느만남이 이렇게 격의없고 반갑고 기쁠수있을까? 나는 바로 그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를 기쁜마음으로 환대를 하곤 방송후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3시간후에 그를 만나러 들른 그가게에서 본 그는 손과 얼굴에 먼지를 쓰며 열심히 일을하고 있었다”전도사님 제꼴이 이래요 머리도 손질못하고 이전에 스타일은 다없어지고 거지 다됐어요”라며 웃지만 내게 보이는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가장이되어 쓰러질때까지 일하는 그의 성실한 자세가 그랬고 아내와 자식이 이뻐 그들 챙기느라 쪽빠어입던 자신의 스타일을 접어버리고 후줄끄레한 모습으로 다니는 그모습이 내겐 너무나 아름다웠다. 갱동생들을 백그라운드삼아 품잡고 다니던 그가 향수대신 땀내음을 풍기며 맨하탄을 누비며 다니는 그에게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그와 어울려 다니지 말라며 걱정의 눈초리로 그를 곱지 않게 보던 그의 친구들의 부모님들 까지도 장성한 그를 보며 칭찬과 격려와 믿음을 보내는 그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었다.